

[현장] 서울문화재단 2009 예술지원사업 간담회

서울의 문화예술 지원을 전담하기로

양혜영 기자 plus@newsculture.tv



▲ 서울문화재단 주최로 [2009 서울형 예술지원사업] 기자간담회가 오늘(11월24일) 오후 1시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 김규준 기자

지난 9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새 정부 주요 예술정책'에 관련하여 서울문화재단이 새로운 서울형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서울문화재단 주최로 [2009 서울형 예술지원사업] 기자간담회가 오늘(11월24일) 오후 1시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최종철 예술지원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예술위에 포함되었던 예술지원사업 중 서울시에 할당된 부분을 흡수하여 서울만의 예술지원사업을 전담하게 됨을 알리는 자리였다.

안호상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원제도의 큰 틀이 바꿨다. 정기공모를 통해 개인 또는 예술단체가 받던 지원을 통합하여 서울문화재단에서 전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서울맞춤형 예술지원 제도'를 통해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해 양질의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힘쓰며, 시민들이 문화활동을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맞춤형 예술지원은 직접 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창작 환경 제공을 통한 간접 지원과 신진 예술인 및 단체 발굴, 육성에 힘쓰는 등 창작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안호상 대표이사는 직접 설명을 하는 열의를 보였다. 서울문화재단은 기존의 지원제도에서 기존의 단체들이 세분화 되어 수만 늘어나는 폐단을 막고, 통합된 지원정책을 통해 간접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형 예술지원사업의 추진 재원은 총 182억 원이다. 예술위가 보유하고 있던 56억 원과 서울시 매칭예산 56억 원에 기존의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예산 70억 원이 더해진 값이다.

안호상 대표이사는 "시민예술을 위한 직접 재원을 확대하였다. 이는 예술활동이 특정인, 특정 단체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지역과의 연계가 적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전문예술단체로 지역은 물론 시민과도 밀착된 예술활동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문화재단이 제공하는 직접지원에는 '정기공모'와 '특성화'가 있다. 정기공모를 통한 예술지원을 전담하게 된 서울문화재단은 '생활 속 예술지원', '시민축제지원', '예술표현활동지원'과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라는 네 가지로 구분된 정기공모사업을 진행한다. 전담을 통해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현행 700여 개에서 900여 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 단체가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다액소건' 지원 강화로 양질의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와 개인에게 작품 활동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원을 받은 후 사후관리제도인 '7:3제도'를 통해 지원사업의 책임을 지게 된다.

간접지원 서비스로 제공되는 문화공간에는 새롭게 남산드라마센터를 인수해 창작 및 교육공간으로 사용한다. 또한 시각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모여있는 문래동에 아트팩토리를 만들어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기존의 서울연극센터와 대학로 연습실 등과 새롭게 조성되는 흥대 복합문화센터 등 간접적으로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경제 상황 속에서 문화예술계 역시 턱 없이 부족한 지원으로 힘들다. 서울시의 문화예술 지원을 전담하게 된 서울문화재단에서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심사를 통해 보다 가능성과 실력을 갖춘 문화예술인들이 지원을 받게 되길 기대해 본다.

(문화전문 인터넷 일간지 뉴스컬처)

<저작권자 © 뉴스컬처(<http://www.newsculture.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입력시간 : 2008년 11월24일 [17:01:00]